

현대차 임단협 타결...기아차 탄력받나

매년 현대차와 비슷한 조건 합의...통상임금이 '변수' 금호타이어 노조 고용안정 우선...구조조정 합의 관련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이 잠정합의됨에 따라 협상을 진행중인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의 임단협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전날 울산 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39차 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5만8000원 인상(정기승호, 별도승호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00%+280만원, 중소기업 제품 구입시 20만 포인트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가 도출됐다.

잠정합의 이후 현대차 노조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족하지만 해를 넘기기보다 연내 타결이 조합원들에게 장기적으로 득이 된다는 생각이 고독한 결단을 했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인상안은 애초 전임 노조 집행부가 사측에 요구했던 인상분의 3분의 1수준이다. 노조는 그럼에도 "걸어지는 파업임금 손실, 노조 내부의 대의원 선거, 정기대의원대회를 마치면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 교섭을 재개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합의안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현대차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내면서 아직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기아차의 임단협 속도도 내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통상 기아차는 현대차의 임단협 결과에 따라 비슷한 조건으로 협상을 도출했다"며 "임금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 노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성사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달 29일 올해 임금협상 재개를 위한 첫 상견례를 진행한 데 이어 본격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올해 기본급 15만4883원(기본급 대비 6.93%·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통상 임금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올해는 통상임금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아차는 올해 통상임금 문제 여파로 10년 만에 적자 전환하면서 잔업 중지 및 특근 최소화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노사 갈등은 깊어진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기아차는 현대차의 임단협 결과를 따라갔지만 올해는 사측의 통상임금 소송 패소라는 굵직한 사

항이 발생해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 잠정합의가 임금보다는 고용 안정에 맞춰지면서 경영악화 속에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임단협에도 어떤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임단협상을 아직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는 금호타이어에서는 임금보다는 고용 안정이 우선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호타이어 노조는 최근 채권단의 인력구조조정이 포함된 자구계획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구성원의 고용과 임금을 지키는 정상화 논의에는 참여하겠지만 일방적인 자구화를 추진한다면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주장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72.37 (-6.16)	↓ 금리 (국고채 3년) 2.09% (-0.01)
↓ 코스닥 755.27 (-10.91)	↓ 환율 (USD) 1080.90원 (-4.00)



오비맥주 '지역 인재 육성' 감사패

광주시에 15년간 4억4500만원 기탁

오비맥주(대표 김도훈)는 20일 광주 시로부터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박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광주시청에서 오비맥주 조승훈 호남권역본부장에게 15년간 '빛고를 장학금'을 후원해온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지역 상생 발전을 핵심 이념으로 삼고 있는 오비맥주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15년 동안 광주시 인재육성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 인재 발굴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왔다.

이날 감사패 수여에 앞서 오비맥주는 올해 하반기 성금을 모아 빛고를 장학금 1500만원을 광주시에 기탁했다. 장학금은 광주시 산하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인재들의 생활비와 학업 지원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오비맥주가 기탁한 광주지역 인재육성 장학금은 현재까지 총 4억4500만원에 이른다.

오비맥주 조승훈 본부장은 "광주시민들의 애정을 바탕으로 성장한 대표 향토 기업으로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미래 사회 주역이 될 지역 인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비맥주는 장학금 기탁 외에도 이웃돕기 성금 기탁, 하천 정화 활동 등 광주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호남권 건설현장 재해 줄이자"

익산국토청 건설안전협 개최...내년 추진 계획 등 논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철홍)은 지난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광주와 전남·북 지역 건설현장의 안전문제를 확산하고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제4차 호남권 건설안전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호남지역 건설 재해를 줄이고 건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 5월부터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LH 광주전남본부 등 11개 위원단과 안전보건공단 광주본부, 건설협회 등 9개 자문단으로 구성돼 운영 중이다.

이번 협의회에는 2017년 3월에 계획했던 건설안전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건설현장 안전관리 점검 등 6대 공통과제에 대한 평가 등 협의회 활동을 결산하고 내년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김철홍 익산국토청장은 "금년 협의회 활동을 통해 11개 호남지역 발주기관은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과 함께 건설안전에 대한 전 국민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면서 "오는 2018년부터는 호남지역에서 더 이상 건설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협의회 기관이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안전 예방에 힘쓰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와 함께 올해 추진과제 공모전과 포스터 경진대회 결과 우수작으로 선정된 11편에 대한 시상식도 가졌다.

/김대성기자bigkim@

한전, 다문화 가정 50명 베트남 모국방문 지원 5년간 347명 혜택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베트남 이주여성과 자녀 등 총 50명을 대상으로 베트남 모국방문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모국방문 행사는 베트남 이주여성 자녀들이 미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고자 마련됐다. 대상자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열악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학업이 우수한 본사 지역 중심 중·고교 학생들로 선정했다.

베트남 방문의 주요 일정으로는 국제 청소년 교류 행사, 문화유적 탐방, 친지 만남의 시간, 호찌민대학교 방문 등이다.

한전은 5년째 시행 중인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행사를 통해 지금까지 총 347명의 이주여성 및 자녀들이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 모국을 방문할 기회를 제공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정부 "3년간 청년농업인 1만명 육성"

농식품부, 육성대책 발표...농지·자금·기술 종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오는 2022년까지 청년농업인 1만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청년창업농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청년 영농창업·정착지원 TF'를 구성해 청년농, 전문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농정개혁위원회 등의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진입

초기에 겪게 되는 소득 불안, 자금·농지 등 기반 확보 애로, 영농기술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농식품부는 청년창업농 집중 육성을 위해 기존에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이하 요건으로 통합 선발하던 '후계농업경영인'을 세분화해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3년 이하 청년창업농을 별도로 선발하기로 했다. 대략 15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체 청년창업농 중 1200명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독립경영 1년차 3년·2년차 2년·3년차 1년) 지급하기로 했다. 전체 청년창업농들에게는 농지, 자금, 기술을 종합 지원하는 담보가 부족한 청년창업농을 위해 후계농자금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비율을 90%에서 95%로 확대

한다.

그동안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청년창업농들의 재무·회계 등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농업법인 취업지원을 추진하고 기술센터가 농가를 방문해 경영진단을 해주는 컨설팅도 내년 추진된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자금·기술교육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접속해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해 거주하거나 장업을 희망하는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금남새마을금고와 든든한 미래를 위한 약속

회원의 소중한 꿈이 담긴 자산!
MG금남새마을금고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정기예탁금

1년 최고 **2.4%**

정기적금

1년	2년	3년
2.2%	2.3%	2.4%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신만만 자유예탁금**

단 하루를 맡겨도
최고 **1.6%**
(금액에 따라 이율 차등 적용)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 223-8007, 232-7251 총장지점 ☎ 223-7217, 223-7218

2017년 한 해 동안 금남새마을금고를 이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술년 새해에도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지향하며 고객 여러분의 꿈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